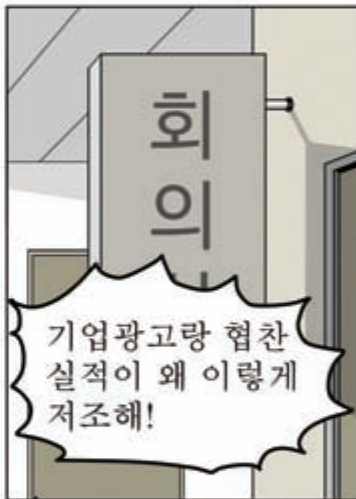




사이비 언론 행위 고발편

#4 오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글 K A A + 그림





MAVER 뉴스

미래그룹의 흑역사

불순물 곤혹 치른 '미래'
해외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큰 기업이라
믿고 샀는데... 당국 조사 나서나
....(중략)

다음 날



이런 기사는 사실이든 아니든 당장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아니면 말고 식의 오보로 인한 피해는 기업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거야.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 해명자료 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포털을 통해 기사들이 퍼질대로 퍼진 상태야.



지금이라도 요구대로 해주고 기사 내리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프지만 마땅한 대응책도 없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 오보기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강력 처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의 악의적 보도나 명예훼손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실손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제도. 이 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은 언론의 명예훼손 또는 악의적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평균 15~20억원에 달함.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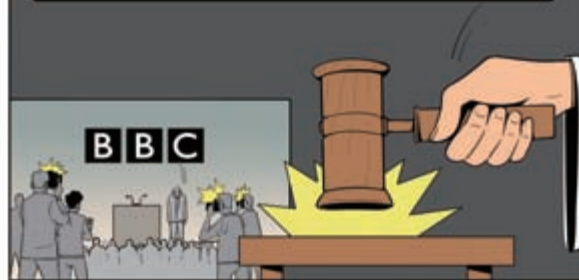
::DAILY STAR

2007년 영국 매체인 데일리 익스프레스와 데일리 스타는 4살 여아 매들린 매칸의 실종사건이 부모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함. 기사는 오보로 판명. 런던 고등법원은 두 언론사에 55만 파운드(약 10억원)를 배상하라고 지시.



〈사례 2〉

2008년 영국 BBC는 보수당 상원의원 맥알파인을 아동성학대범으로 잘못 지목하는 오보 발생. BBC는 18만 5천 파운드(약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고 앤슬워트 사장 사임함.





*2015년 8월,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중소기업중앙회 000 前회장을 비방한 한 월간지의 박모 편집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문화일보 2015.8.6일자 보도)